

제주도 무속신화 조상신본풀이 속 이타성 담론 연구*

강지연**

〈차례〉

1. 들어가며
2. '동의-거부' 태도에 따른 관계의 양태
3. 조상신본풀이가 구현하는 이타성 담론
4.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상신본풀이 중에서 〈광청아기본〉, 〈나주기민창조상본〉, 〈양이목사본〉을 중심으로 인간과 조상의 관계 맺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풀이에서 구현하는 이타성의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상신본풀이의 서사는 인간과의 특수한 '관계 맺음'에 주목하여, 조상이 어떻게 한 가문에서 제향(祭享) 받는 신이 되는가를 전한다. 이타성의 담론은 조상신본풀이를 지배하는 중심 사건과 연관되어, 조상과 인간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잇는 배경을 제시하고, 이 둘의 특별한 관계를 해명하는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인물의 태도를 '동의'와 '거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조상과 인간의 관계 형성의 배경을 확인하였다. 동의와 거부의 태도는 인물의 이타성을 판단하는 준거로 작용한다. 동의하는 태도가 전제되지 않고는, 이타성을 실현할 수 없으며, 배려와 협력 등 이타성으로부터 후속되는 행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광청아기본〉과 〈양이목사본〉에서는 일월조상이 되는 아기씨와 양이 목사의 이타성을, 〈나주기민창본〉에서는 안씨 선주의 이타성이 주목된다. 광청아기씨와 송영감, 뱀신과 안씨 선조, 양이목사와 금부도사의 관계에서 이타성의 발현은 타인의 행위와 뜻에 공감하는 동의를

* 이 논문은 2021년 11월 26일~27일 한국무속학회 57차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였음.

** 서원대학교 휴머니티교양대학 조교수

원리에 입각하여 나타난다. 이때 일월조상은 자신보다 후손의 안위(安危)를 생각하고, 인간은 조상의 마지막 당부를 기억해서 그의 뜻을 기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상이 인간으로부터 섬기는 신이 되고, 인간은 조상의 특별한 후손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타자에 대한 인식과 섬김에 담긴 사유의 한 단면을 읽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의 좌정 동인(動因)을 이타성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신화의 세계에서 그려지는 이타적 사유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오늘날 이기심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대안을 고구하였다. 조상신본풀이는 조상신과 인간의 관계 맺음을 넘어 나와 타인이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가르침을 전한다. 그리하여 나와 타자가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겪어야 할 갈등 해결의 방식에서 성찰의 기회를 마련한다.

주제어 조상신본풀이, 이타성, 동의, 거부, 호혜적, 일월조상

1. 들어가며

타인을 도우려는 자발적인 의지나 행동, 심리 상태를 뜻하는 이타성의 개념은 “생명의 중요한 현상”이자, “생명의 본성 해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이다.¹⁾ 이타성의 논의는 인간 본성을 연구하는 철학과 신학에서 다루는 주요한 연구 과제 중 하나이며, 최근에는 인지과학과 뇌과학 분야에서 학제 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²⁾ 이타적 행위자는 행위의 결과에 따른 보상을 바라지 않으며, 때로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남을 도우려는 자세를 견지한다. 이타적 행위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 협력을 중시하며,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기에, 궁극적으로는 상호작용의 긍정적인 효과를 불

1) 전철, 「이타주의에 대한 신학적 연구-포스트휴먼 이타성 담론과 평화 담론의 대화」, 『신학사상』 184,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2019, 119쪽.

2) 강성영, 이상철, 「포스트휴먼 시대, 이타성(Aterity)의 신학과 윤리학을 위한 서설」, 『신학사상』 198,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2022, 9~11쪽.

러온다. 이러한 사실은 이타성의 개념이 사랑과 봉사의 가치를 중시하는 종교 담론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활양식은 혼자 활동하는 것을 즐기는 일명 ‘혼족’ 문화를 즐기며 인간관계에 피곤함을 느끼는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대학생 전문잡지인 <대학내일>의 20대 연구소에서 조사한 20대 인간관계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과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피한 적 있다’는 문항에 50.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³⁾ 개인과 집단의 협력을 추구하는 공동체 문화를 기피하고, 개인의 편의와 이익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⁴⁾ 이타성의 담론은 개인주의로부터 야기되는 다양한 갈등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적인 관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공동체 문화의 중요성이 도외시되는 현대 사회에 이타성의 가치를 일깨우고자, 조상신본풀이에 나타난 이타성의 담론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간과 조상의 상호 관계 맺는 방식에 주목하여 본풀이에서 구현하는 이타성의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상신본풀이는 한 집안 혹은 씨족의 수호신(氏族)이 되는 조상에 관한 이야기로, 제향에서 모시는 조상이 어떻게 그 집안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전한다.⁵⁾ 제주도민들은 유교식 제사에서 모시는 조상과 심방에 의해 의례(굿)에서 모시는 조상의 개념을 구별한다.⁶⁾ 전자의 경우는 특정 제사일이

3) 대학내일20대연구소 “관태기를 겪고 있는 20대의 인간관계 인식 및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2016,04,26 <https://www.20slab.org/Archives/12976> (검색일: 2023.07.19.)

4) 20대 4명 중 1명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20slab.org/Archives/12976>

5) 선행연구에서 밝힌 조상신본풀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한 집안 또는 씨족(氏族)의 수호신에 관한 이야기”(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753쪽.) “특정한 집안에서 섬기는 수호신의 내력을 말하는 본풀이”(김현선,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보고서, 2006, 16쪽.) 이러한 정의는 인간이 조상을 섬기고, 조상은 인간을 수호한다는 공통의 의미를 공유한다.

나 명절 때 유교식 제사를 드리는 반면, 비(非)혈연관계에 있는 조상(신)은 심방에 의해 무속 의례(굿)로 모신다. 조상이라는 용어는 동일하지만, 의례에서 모시는 조상은 ‘초상’ 또는 ‘일월조상’이라 불리며, 주로 집안의 고방(庫房)이나 울타리 밖에서 인간에 의해 상시 섬김을 받는다. 효 사상을 중시하는 유교 담론의 관점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조상을 위한 제시는 후손들의 당연한 의무로 인식되는 편이지만, 일월조상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아무 연고 없는 집안에서 조상이 될 수 없는 터라, 한 집안에서 일월 조상을 섬기는 데에는 특별한 사연을 필요로 한다.

일월조상신이 되기까지의 내력을 전하는 조상신본풀이의 서사는 ‘일월조상과 인간(혹은 가문)의 관계의 기원’을 다룬다. 아울러 일월조상은 특정 가문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는 점에서 제주도 전체에서 섬김을 받는 신(神)보다 인간과 신의 관계가 친밀한 편이다. 이는 큰 굿에서 모시는 일반 신에 비해 조상신의 위계나 신직(神職)에 따른 차이⁷⁾에서 비롯한 것이기도 하지만, 일월조상을 섬기게 되는 배경에 관계의 논리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반신본풀이에서 신(神)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얻은 역량과 자질로 인하여 그와 연계되는 신직(神職)을 받는 것이 보편적이다.

6) 현용준, 「제주도(濟州島) 무신(巫神)의 형성(形成)」, 『탐라문화』 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82, 2쪽.

7) 현용준은 본풀이에서 다루는 신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일반신본풀이는 “자연사상(自然事象)이나 인문사상(人文事象)을 차지하고 있는 신(新)”, 당신본풀이는 “부락수호신(部落守護神)인 당신(堂神)” 조상신본풀이는 “한 집안의 수호신”이 그것이다. 현용준, 같은 책, 753쪽.; 김현선은 신이나 신앙의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세 가지 본풀이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일반신본풀이는 우주적이고 인문적인 대상의 신, 당신본풀이는 특정 마을에 자리 잡은 수호신, 조상신본풀이는 특정한 집안에서 섬기는 수호신에 대한 것이다. 김현선, 현용준, 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보고서, 2006, 16쪽. 선행 연구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는 각각 자연·우주/ 마을·부락/집안으로 신의 영역이 축소됨을 알 수 있다.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는 나라의 변란을 진압하여 공로를 세우고, 오곡의 씨앗을 받아 인간 세상에 내려와 농경신이 되었다. 〈문전본풀이〉에서 막내아들 녹디생이는 가정을 위기에 빠트린 계모를 징치하고, 대문을 지키는 문전신으로 좌정한다. 이와 같이 일반신본풀이의 서사는 신화적 주인공의 고난과 고난 극복의 사건을 다루며, 신의 좌정 내력을 전한다.

반면, 조상신본풀이의 서사는 인간과의 특수한 ‘관계 맺음’에 주목하여, 조상이 어떻게 한 가문에서 제향 받는 신이 되는가를 전한다. 이 과정에서 조상과 인간은 협력과 호혜 관계를 맺고 이타성을 실현한다. 이타성의 담론은 조상신본풀이를 지배하는 중심 사건과 연관되어, 조상과 인간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잇는 배경을 제시하고, 이 둘의 특별한 관계를 해명하는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동안 조상신본풀이에 대한 자료 유형은 연구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조상신본풀이에 대한 자료 개관 및 이야기 구조, 유형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김현선, 전주희, 류진옥의 연구가 있다. 김현선은 자료의 통합적 관점을 위해서 신 좌정 경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⁸⁾ (1)남녀 이합·애정담 유형, (2)강신·원사 유형, (3)부군칠성 유형, (4)영감(도채비) 유형이 그것이다. 대표적으로 〈광청아기본〉과 〈구슬할망본〉을 대상으로 서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조상신본풀이 서사의 공통적인 특징을 해명하였다.

류진옥은 조상신의 특성과 조상신 좌정 동인(動因)에 따라 두 가지 유형 분류를 제시한 바 있다. 조상신의 특성에 주목할 경우, 비(非)인격신과 인격신으로 나뉘며, 조상신의 좌정 동인에 따라서는 실패 유형과 성취 유형으로 하위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⁹⁾ 류진옥은 현재까지 채록된 조상신본풀

8) 김현선,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의 신화적 성격과 역사적 의의」, 『한국무속학』 11, 한국무속학회, 2006, 208쪽.

9) 류진옥,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16

이 10권의 자료를 중심으로 47개의 각편과 그 이본 95편을 정리하였다. 이 논의는 일차적으로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유형화 작업 이후, 조상신 본풀이의 서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신앙 관념에 대한 경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주희는 조상신본풀이의 담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섬김’에 주목하여, 섬김의 성격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¹⁰⁾ (1)‘위무(慰撫)’가 목적인 경우, (2)조상신에 대한 ‘선양(宣揚)과 기념’이 목적인 경우, (3)위무와 기념이 공존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섬김의 목적에 따라서 섬김의 대상이 되는 조상의 특성도 세 가지 양상을 띤다.¹¹⁾ 이러한 유형 분류는 조상신의 성격과 후손들이 마련하는 제의의 성격을 아우르며¹²⁾ 본고에서 살피는 조상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러 조상신본풀이 중에서도 본고에서는 <광청아기본>, <나주기민창조상본>, <양이목사본>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한다. 전주희의 유형 분류에 따르면 세 본풀이에 등장하는 조상은 각각 원혼으로 된 조상, 선업(善業)을 쌓은 조상, 원혼과 선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조상에 해당한다. 또한 류진옥이 조상신본풀이 자료 95개 전편을 조사하여, “조상신 신앙 형성”에 일정한 경향성을 제시하였는데, 이 유형화의 분류를 따르면 세 본풀이는 무속 신앙적 관념과 역사적 사실의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27~34쪽.

- 10) 전주희, 「제주도 본풀이의 세계관과 에토스 연구」,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83~84쪽.
- 11) 첫째, 위무가 목적인 경우 섬김의 대상은 원혼이나 고혼이 된 조상이다. 둘째, 선양과 기념이 목적인 경우 선업(善業)과 공적을 쌓은 조상을 섬긴다. 셋째, 위무와 기념이 공존하는 목적에서는 원혼과 선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조상을 섬긴다. 전주희(2018), 위의 논문, 83~84쪽.
- 12) 이러한 유형 분류가 “집안 후손들의 제의의 성격과 정념의 분위기, 그리고 조상신의 성격과 그들 행위의 맥락을 비교적 일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돕는다.” 전주희(2018), 위의 논문, 84쪽.

선행연구의 분류 기준에 기대어 보면, 본고에서 다루려는 세 본풀이의 주요 갈등과 인물의 특징 등 서로 공통되거나, 겹치는 요소가 거의 없다. 조상의 성격과 의례의 목적, 신앙 관념이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세 편의 자료를 선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이타성의 논리는 조상신본풀이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 형성에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신화적 사건과 주요 갈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 본풀이가 어떻게 이타성의 논리로 수렴될 수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유형이 서로 다른 본풀이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유형 분류를 토대로 하되, 특정 유형에서만 자료를 선정하지 않으므로 조상신본풀이의 성격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세 본풀이의 갈등 구조에서 각각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집단’, ‘집단 대 집단’의 관계를 읽을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갈등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조상신본풀이를 개괄적으로 이해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인물의 말과 행위에서 직접적으로 이타적인 행위가 드러나지 않아도, 이타성을 읽을 수 있다. 서사에서 이타적 행위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함축된 의미를 탐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풀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담화의 의미를 독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신화의 의미를 온전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 선정한 연구 대상 본풀이는 기존의 유형화 분류에서 겹치지 않는다는 점, 서사의 표층에서 이타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고의 연구 주제에 적합한 텍스트라 하겠다.

〈광청아기본〉의 이본은 총 15편으로 가장 많은 채론본을 가지고 있으며, 원혼이 일월조상이 되는 가장 전형적인 서사 구조를 가진다.¹³⁾ 〈나주기민

13) 〈광청아기본〉의 서사 구조를 분석한 류진옥은 ‘원혼의 좌정담으로서의 가장 전형적인 구조를 담고 있다고 보았다. 류진옥,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형성 연구』, 『무형유산학』 4(1), 무형유산학회, 2019, 60쪽.

창조상본)은 업신앙의 성격과 당신본풀이의 성격을 두루 지니고 있어, 다른 조상신본풀이와는 차별화된 개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마지막으로 <양이목사본>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 조상에 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¹⁴⁾ 제주 백성을 위해 희생하는 양이 목사의 활약에서 이타성을 읽을 수 있다.

2장에서는 서사의 중심 사건과 갈등 해결의 과정에서 조상-인간의 태도에 주목하여, 이 둘의 관계의 양태를 분석한다. 이는 본풀이의 중심 사건과 그 사건을 다루는 인물의 태도에 주목함으로써 담화의 표층에서 드러나지 않은 조상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로부터 3장의 논의는 조상신본풀이가 구현하는 이타성의 논리와 담론의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풀이 자료는 현용준의 『제주도무속자료사전』과 『제주도 신화』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현용준의 자료는 제주 무가 전반의 자료를 모아 기술한 것으로, 제주 방언에 대한 해설과 세세한 묘사가 탁월하여, 자료의 공신력을 확보할 만한 자료집이다. 아울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서순실 심방 본풀이』도 참고하여 본풀이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4) 양이목사가 혈연 조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진희는 이 본풀이가 “양이목사가 일월조상으로서 집안을 수호해 준다고 함으로써 집안 수호신의 ‘힘’을 재확인하는 담론”으로 규정하고, 양이목사를 혈연 조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정진희, 「제주도 조상본풀이 <양이목사본>의 한 해석」, 『제주도연구』 32, 제주학회, 2009, 205~228쪽.) 반면 류진옥은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때의 양호 목사가 양이목사의 행적과 유사함을 근거로, 그를 혈연조상으로 추정하였다. (류진옥, 「조상신본풀이 전승 양상」, 『한국무속학』 38, 한국무속학회, 2019, 113~149쪽) 본고에서 주목하는 이타성의 담론은 혈연과 비혈연의 여부와 무관하게 인간과 조상의 관계 양태를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2. ‘동의-거부’ 태도에 따른 관계의 양태

인간 본성을 둘러싼 성선설과 성악설의 논쟁은 인간의 본성이 이타적인가 이기적인가에 대한 물음과도 연결된다. 맹자의 성선설의 관점에서 이타성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에 주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순자의 성악설의 관점에서 이타성은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인위적인 것이다.

본고에서 이타성의 본질을 해명하는 작업은 연구 주제에서 벗어난다. 대신 조상신본풀이를 이타성의 담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루고, 본고에서 이타성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살펴, 분석의 논지를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인물의 태도를 ‘동의’와 ‘거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조상과 인간의 관계 형성의 배경을 확인한다. 본풀이의 서사를 전개하는 중심축에는 사건을 해결하는 인물의 행위가 있고, 인물이 어떠한 태도로 사건을 해결하느냐에 따라 조상과 인간의 관계가 달라진다. 나와 타인이 의견을 같이하는 ‘동의’의 태도와 타인의 요구와 뜻에 거절하는 ‘거부’의 태도는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동의의 태도란, 사전적 의미 그대로 타인과 뜻을 같이 하거나, 상대의 의사와 행위를 승인하여 그 뜻에 동참하는 것을 말한다. 정서적으로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그친다면 소극적인 동의에 해당하며, 동참하는 마음이 특별한 행위로 이어지면 적극적 동의라 할 수 있다. 이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써 거부의 태도는 타인의 요구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소극적인 거부는 단순히 뜻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지만, 적극적 거부는 타인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태도까지 아우른다.

동의를 거부의 태도는 인물의 이타성을 판단하는 준거가 될 만하다. 가령, 이타성의 의미를 구성하는 하위 개념 중에는 대표적으로 타인을 향한 배려와 측은지심(惻隱之心), 감정이입의 태도를 들 수 있다. 그런데 타인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배려 없는 태도 혹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않는 거부의 태도에서는 이타성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다시 말해 동의하는 태도가 전제되지 않고는, 이타성을 실현할 수 없으며, 배려와 협력 등 이타성으로부터 후속되는 행위가 나올 수 없다.

이러한 사정으로 동의 혹은 거부의 태도는 이타성 실현 여부(與否)를 결정한다. 결과적으로 동의 혹은 거부의 태도에 따라 조상과 인간의 관계가 달라지며, 이로부터 일월조상으로 섬기게 되는 사건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겠다.

(1) <광청아기본>

1. 송동지 영감(이하 ‘송영감’으로 약칭)이 사또의 명을 받고 서울에 진상하러 왔다가 광청고을 허정승택에 유숙한다.
2. 송영감이 밤이 깊도록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거닐다가 광청아기씨(이하 ‘아기씨’로 약칭)를 만난다.
 - 2.1. 아기씨가 자신의 방안으로 송영감을 데려가 술을 건넨다.
 - 2.2. 아기씨가 부모의 명으로 혼인을 앞둔 처지임을 밝힌다.
3. 송영감과 아기씨는 밤새도록 색시놀이를 하며 합방한다.
4. 송영감이 제주로 떠나고 아기씨와 이별한다.
5. 송영감이 또 서울에 진상하러 왔다가 아기씨 사랑방에 찾아간다.
 - 5.1. 아기씨가 임신한 한 사실을 알게 된다.
6. 송영감이 제주에 함께 가자는 아기씨의 부탁을 거절한다.
 - 6.1. 아기씨가 송영감의 도포자락을 잠시 놓은 틈을 타 송영감이 달아난다.
7. 아기씨가 송영감이 탄 배에 따라 오르다가 물속에 빠져 죽는다.¹⁵⁾
 - 7.1. 송영감이 아기씨를 배 발판에서 본 것을 환상으로 생각한다.

15) 이중춘 심방이 구연한 <광청아기본풀이>에서는 뱃사공들이 배에 발판을 당겨 아기씨를 적극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묘사된다. 반면, 서순실 심방 구연본에서는 아기씨가 송영감 자녀에게 줄 물색 상자를 머리에 이고 배를 타다가 물에 빠져 죽는 것으로 묘사된다. 『서순실심방본풀이』, 2015, 280~288쪽.

8. 송영감이 동김녕 포구에서 내려 마중 나온 막내딸을 만난다.
 - 8.1 송영감 막내딸이 부모 형제도 몰라보고, 동김녕 물결로 달려든다.
 9. 아기씨의 영혼이 송영감 막내딸에게 의탁하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¹⁶⁾
10. 송영감이 심방을 불러다 큰 굿을 하고, 아기씨의 원혼을 달랜다.
11. 송영감택은 거부가 되고 아기씨는 동김녕 송씨 집안 고방으로 모셔진다.

〈안사인 본〉¹⁷⁾

〈광청아기본〉의 서사는 송영감과 아기씨의 ‘만남-이별(죽음)-만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송영감과 아기씨의 만남은 서로에 대한 호의적인 관심을 갖는 것으로 성사된다. 허정승 댁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영감이 우연히 사랑방에 있는 아기씨와 마주하는데, 둘은 이내 깊은 대화를 나눌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된다. 아기씨가 송영감을 위해 준비한 술상은 둘의 만남을 예견하였거나, 적어도 영감에 대한 아기씨의 정성과 관심이 담긴 표식이 될 만하다. 난데없이 색시놀이를 청하는 아기씨의 권유에도 영감은 주저 않고 아기씨의 부탁을 들어준다. 이듬해에 송영감이 다시 진상을 하러 왔다가 아기씨를 찾아간다. 영감 역시 아기씨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둘은 서로의 뜻을 헤아려 마음을 나누었으므로, 둘의 만남은 서로 같은 마음으로 소통하는 ‘동의’ 태도를 전제로 한다.

이듬해에 송영감이 아기씨를 다시 찾아가 아기씨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둘 사이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송영감을 따라가겠다는 아기씨의 부탁을 거부하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다. 물론 당시에는 육지

16) 〈광청아기본〉의 채록본은 이본마다 대동소이한 차이를 보인다. 류진옥은 현용준이 채록한 안사인 심방 구연본과 이중춘 심방과 서순실 심방의 구연본을 비교 고찰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광청아기씨 신앙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류진옥의 논문을 참조. 류진옥, 「제주도 조상신 ‘광청아기씨’ 신앙의 형성 배경 고찰」, 『한국무속학』 42, 한국무속학회, 2021, 113~146쪽.

17) 현용준, 〈광청아기(송동지영감)본〉,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709~713쪽; 현용준, 〈광청아기〉, 『제주도 신화』, 서문당, 2016, 264~268.

사람과 제주 사람의 왕래가 금지되었던 때라, 이를 영감의 개인적인 태도의 문제로 단정하기 어렵다. 조현설은 아기씨의 죽음과 그 비극의 원인을 출륙금지령이 시행되었던 제도의 문제로 보고, 이 서사를 “제도와 권력의 포로”가 된 “비극적 애정 서사”라고 보았다.¹⁸⁾ 출륙금지령으로 제주와 육지의 왕래가 단절되었으며, 영감의 거부적 태도는 제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출륙금지령이 시행된 15세기 조선 중기의 사정을 고려하면, 송영감의 무책임한 태도를 제도 탓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음은 출륙금지령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다.

“제주(濟州)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유리(流離)하여 육지의 고을에 옮겨 사는 관계로 세 고을의 군액(軍額)이 감소하자, 비국이 도민(島民)의 출입을 엄급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따랐다.” (인조 7년, 1629년 8월 13일)¹⁹⁾

출륙금지령(出陸禁止令)은 엄밀히 말해 제주도민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제정되었으며, 제주 인구의 감소 및 특산품의 진상 문제 등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²⁰⁾ 제주 사람이 육지로 이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임을 고려한다면, 송영감이 아기씨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을 제도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아기씨의 부탁을 거절하고, 송영감 혼자만이 제주를 떠나면서 둘 사이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른다.

결국에 아기씨가 송영감 뒤를 따라 나섰다가 물에 빠져 죽고 만다. 그녀

18) 이종춘 심방이 구연한 <광청아기본풀이>에서는 물에 빠진 아기씨를 사공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샅대로 밀어버리기까지 한다. 이에 대해서 아기씨에 대한 강한 거부에는 “외부인에 대한 두려움의 결과”이자 “제주인들의 집단기억”이 투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현설, 「제주 본풀이에 표현된 집단기억과 제주인의 정체성 연구」, 『고전문학연구』 58, 고전문학연구학회, 2020, 281~282쪽.

19)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id/kpa_10708013_003 (검색일: 2023.06.21)

20)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디지털제주문화대전-출륙금지령>, <http://jeju.grandculture.net/jeju> (검색일: 2023.06.25.)

의 죽음은 억울한 사연으로 얼룩져 원혼이 되어간다. 아기씨가 원혼이 된 문제의 발단은, 그녀의 승선을 막은 뱃사공 때문도 아니고, 제주도민들이 제주 섬을 떠나는 것을 금지한 제도 때문도 아니다. 아기씨 죽음의 근본 원인은 송영감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아기씨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이타심의 결핍과 자신의 안위만을 고려하는 이기심의 결과가 한 여인의 억울한 죽음을 만들었다. 아기씨는 ‘아바님 손에 죽을 생각해야할 만큼 송영감을 따르는 것만이 살 길이었고, 그녀의 절박함을 송영감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송영감이 아기씨의 부탁을 거절함으로 아기씨의 어려운 처지를 모른 체한다.

이러한 이타심의 결핍은 송영감의 가족이 겪을 위기상황으로 이어진다. 아기씨의 원혼이 송영감 막내딸에게 의탁하여 흉험(凶險)을 주기 때문이다. 이후 굿을 마련하고자 아기씨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진다. 이를 두고, 아기씨가 송영감의 자녀에게 해코지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기씨는 송씨 집안의 일월조상이 되어 가문을 수호하기 때문에 단순히 복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기씨를 향한 영감의 태도 변화는 둘 사이의 관계 변화로 이어진다. 마지막에 송영감이 혼령을 위해 굿을 마련하는 것은, 아기씨의 일천간장을 풀어주는 것으로 아기씨를 향한 동의의 태도를 암시한다. 아기씨 또한 영감의 동의적 태도 변화를 수용함으로 일월조상이 되어, 이후로 영감의 가문은 대대손손 복을 누리게 된다.

아기씨는 자신의 부탁을 거부하고 홀대하는 송영감을 포함해 아기씨의 승선을 방해하여 바다에 빠트린 뱃사공, 그리고 송영감의 딸 중에서 누구도 해치지 않았다. 자신의 사연을 알리는 것이 곧 죽은 혼령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며, 상대가 동의하는 것만이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흉험이 주는 의미는 아기씨가 막내딸의 몸을 빌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송영감과 관계 회복을 꾀하는 것임을 암시한다. 아기씨

는 곳을 통해서 송영감이 과오를 뉘우칠 수 있게 하고, 송씨 가문의 번영을 지켜주겠다는 약속까지 한다. 아기씨의 이타심은 송씨 가문에 일월조상이 되어가는 동인(動因)으로 작용한다.

(2) 〈나주 기민창 조상본〉

1. 제주에 사는 거부(巨富) 안씨 선주는 사람들을 돕고 지낸다.
2. 제주에 흉년이 들자 제주목사는 안씨선주에게 제주 사람 구휼을 요청한다.
 - 2.1 안씨 선주는 곡식을 구하기 위해 나주 고을로 떠난다.
3. 안씨 선주는 나주 기민 창고지기를 만나서 창고에 곡식을 모두 사기로 한다.
4. 안씨 선주와 나주 사람들이 협력한다.
 - 4.1 안씨 선주가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과 술을 대접한다.
 - 4.2 나주 사람들은 자원하여 창고에 있는 곡식을 안씨 선주의 배에 실어 준다.
5. 안씨 선주가 나주 창고의 곡식을 모두 신고 제주로 떠난다.
 - 5.1 안씨 선주가 배에서 낯선 여인을 만난다.
6. 가는 동중 풍랑으로 배가 침몰의 위기에 처한다.
 - 6.1 안씨 선주가 하늘에 기도를 올린다.
7. 큰 뱀이 나타나 배에 뚫린 구멍을 막아 주어 제주에 무사히 도착한다.
 - 7.1. 안씨 선주가 뱀을 보고 테운 조상으로 여긴다.
 - 7.2. 안씨 선주의 꿈에 뱀이 나타나 자신이 나주 기민창고의 무곡을 지키는 조상임을 밝힌다.
8. 안씨 선주는 뱀을 상단골 고방에서 부군칠성으로 모시고, 거부가 된다.

〈안사인 본〉²¹⁾

〈나주 기민창 조상본〉은 북제주군 조천면 선흘리 안씨 집안의 조상신에

21) 현용준, 〈나주 기민창 조상〉, 『제주도 신화』, 서문당, 2016, 255~260쪽.

관한 내력담이다. 안씨 선주가 나주 기민창고의 무곡섬을 제주로 옮길 때, 창고지기였던 부군칠성이 안씨 집안의 태운 조상이 되는 이야기이다. 제주에서 수십 척의 배를 거느리며 거부로 살던 안씨 선주에게 어느 날 제주 목사로부터 제주민들을 구출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평소에도 안씨 선주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배를 양보할 만큼, 심성이 착했던 인물임을 보여준다. 안씨 선주를 비롯해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서로의 뜻에 동의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다. 갈등 해결의 과정에서 관계 맺는 인물의 구도는 다음과 같다.

- 가) 제주 목사 - 안씨 선주
- 나) 창고지기와 나주 백성 - 안씨 선주
- 다) 부군칠성 - 안씨 선조

가)에서 제주 목사는 흉년이 들어 고통받는 백성의 원성을 듣고서 안씨 선주를 불러다 제주 백성을 구제할 방도에 대해 묻는다. 안씨 선주의 자선 행위는 비록 자발적인 참여는 아니었으나, 흉년이라는 국가적 재난이 자신의 가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기꺼이 제주민 구출에 동참하는 태도에서 이타심을 읽을 수 있다. 안씨 선주가 제주 목사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처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안씨 선주가 곡식을 구하지 못하고 근심하는 모습에서 타인을 향한 동의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단지 선심을 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곡식을 구하러 나주로 떠나는 행위를 통해서 제주 목사의 뜻에 적극적인 동의를 표한다. 제주 목사와 안씨 선주는 제주의 기근 해결이라는 집단의 문제에 뜻을 모아 연대 관계를 맺고 있다.

나)에서 나주 고을 어느 술집에서 만난 창고지기는 안씨 선주의 안색이 좋지 않음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먼저 말을 건넨다. 안씨 선주의 사정을 들은 창고지기가 근심을 해결할 방도를 알려줌으로써 두 사람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호혜적 관계를 맺는다. 두 사람 모두 타인의 상황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쓰기에 처음 만난 사이에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창고지기는 제주민들의 딱한 사정에 공감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안했으며, 안씨 선주는 삼년 묵은 곡식을 팔지 못해 근심하는 창고지기의 마음을 헤아렸다. 두 사람 모두에게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는 이타심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로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 주는 존재가 된다.

사적인 만남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호혜적 관계는 니주 백성 전체로 확장한다. 안씨 선주는 창고에 가득 있는 무곡섬을 배에 싣기 위해 니주 고을 사람들의 힘을 얻고자 하는데, 여기서 안씨 선주가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방식이 흥미롭다.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면 옹당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거나, 부탁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하지만 안씨 선주는 고을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술을 빚고 잔치를 열어, 민심을 얻고자 노력한다. 사람들은 안씨 선주가 마련한 잔치에서 칠 일 동안이나 대접을 받는다.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더 쉽고 빠르게 일손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안씨 선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베풀고, 후에 도움을 구하는 방식으로 그들로부터 진심 어린 동의를 구한다. 그의 뜻에 따라 니주 사람들이 자진하여 일손을 도와서 안씨 선주의 배에 곡식을 실어준다. 고을 사람들 모두 안씨 선주의 일에 동참함으로써 그의 뜻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는 기민창고에서 살던 부군칠성과 안씨 선주가 만나,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수용함으로 신뢰 관계가 성사된다. 안씨 선주가 기민창고의 곡식을 모두 싣고서 제주로 떠나는 길에, 풍랑으로 곡식이 물에 잠기는 위기에 처한다. 이때 어디선가 나타난 뱀이 뱃장 아래 뚫린 구멍을 막아주어 침몰의 위기를 넘기고, 안씨 선주의 배는 무사히 제주에 도착할 수 있었다. 안씨 선주가 하늘을 향해 기도하자, 어디선가 나타난 뱀이 안씨 선주의 배를 안전하게 지켜준 것이다. 갑자기 출현한 뱀을 보고도 선주는 놀라는 기색보

다는 자신의 조상임을 확신하고 예를 갖추어 극진히 대한다. 부군 칠성과 안씨 선주의 행위에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가 원하는 뜻을 들어주는 동의를 태도를 읽을 수 있다.

흉년을 겪은 제주 백성의 기근(饑饉) 문제를 위해 제주 목사로 표상하는 국가와 안씨 선주라는 개인의 협력²²⁾은 물론, 안씨 선주가 속한 공동체(제주)와 외부 집단(나주 고을)이 모두 한 마음으로 동의를 태도를 견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안씨 선주가 기민창고의 곡식을 모두 싣고 떠남으로 그곳에서 살고 있던 뱀신은 갈 곳을 잃었다. 하지만 안씨 선주가 타고 있던 배를 풍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었다는 점, 그의 가는 길을 따라 제주로 거처를 옮기고, 안씨 선주의 꿈에 현신하여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뱀신의 행위에서도 동의적 태도를 읽을 수 있다.

(3) 〈양이 목사본〉

1. 양이 목사가 제주 목사로 부임한다.
 - 1-1 그 시절 임금에게 백마 백 필을 진상하는 상례(常例)가 있었다.
 - 1-2 양이 목사가 진상 제도로 인해 제주 백성의 고충을 상시관에게 진정 올린다.
2. 양이 목사가 백마 백 필에 탐심(貪心)이 생겨 마부에게 자신이 직접 진상한다고 일러둔다.
3. 양이 목사가 한양에 가서 백마 백 필을 진상하지 않고 모두 팔아 버린다.
 - 3-1 백마 백 필을 팔고 받은 돈으로 물품을 사서 제주로 돌아온다.
4. 양이 목사가 세 번까지 진상하지 않자, 상시관이 양이목사를 처형하라고 명한다.

22) 〈나주기민창본풀이〉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민과 관, 제주 내부와 외부의 협력을 강조한다, 물론 그 중심에는 안씨 선주가 있다.” 조현설, 「제주 본풀이에 표현된 집단 기억과 제주인의 정체성 연구」, 『고전문학연구』 58, 한국고전문학회, 2020, 276쪽.

- 4-1 금부도사와 자객이 양이 목사를 잡으러 제주에 간다.
- 4-2 그 무렵 양이목사는 고동지 영감의 배를 타고 도망간다.
- 5. 양이 목사와 금부도사가 배 위에서 결투를 벌인다.
 - 5-1 양이 목사가 자객을 죽이고, 금부도사 무릎을 꿇게 한다.
 - 5-2 양이 목사가 백마 백 필 진상 제도의 폐단을 말하고, 임금의 탐욕을 지적한다.
 - 5-3 양이목사가 백마 백 필을 육지 백성에게 나눠주고, 제주 백성에게 필요한 물품을 얻어 백성을 도왔다고 말한다.
- 6. 양이목사가 금부도사에게 죽임을 당한다.
- 7. 양이목사가 육신 없는 얼굴로 고동지 영감에게 유언을 남긴다.
 - 7-1 토지관 탐라 양씨가 자신을 위해주면 대대손손 돌봐준다고 약속한다.
- 8. 양이 목사의 희생으로 제주에서 어려운 마장은 백마 백 필 진상을 면하게 되었다.

〈안사인 본〉²³⁾

〈양이목사본〉은 정부의 과도한 진상 요구와 수탈에 저항하는 양이 목사가 국가 권력에 투쟁하다가 죽어서 탐라 양씨 명월과 집안의 일월조상신이 되는 이야기다. 전반부(1~4)는 국가가 진상을 요구하여 제주 백성들이 겪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후반부(5~7)는 양이 목사가 진상 요구를 거부하고 저항하다 비극적 결말에 이르는 내용이다. 즉, 지배 집단의 횡포에 저항하는 양이목사의 저항이 서사의 뼈대를 이룬다.

이 본풀이 해석에서 가장 주목 받는 대목은 양이 목사가 진상을 거부하는 장면이다. 양이 목사가 백마 백 필을 진상하지 않고, 탐심(貪心)이 생겼다는 대목(2)과 목사가 진상을 거부하고 재물을 사유화하는 대신, 제주 백성을 구제하는 데 힘썼다는 대목(5-3)에서 그의 태도가 모순적이기 때문이다.²⁴⁾ 양이 목사가 국가의 진상 요구를 거부하고 사적 이익을 챙기는 탐관

23) 현용준, 〈양이목사본〉,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659~694쪽.

오리인지, 아니면 제주 백성을 위한 자혜로운 목민관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중요한 사실은 진상 거부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국가의 무리한 진상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첨예한 갈등 상황은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으로 표상되는 양이 목사와 금부도사의 대결 장면에서 나타난다. 금부도사는 진상을 거부하는 양이목사의 잘못을 다스리고, 그를 징치하는 인물이다. 이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금부도사는 지배 권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반면, 양이 목사는 제주 지역에 대한 중앙 정부의 수탈을 막기 위해 금부도사로부터 억울하게 처형당한다. 따라서 제주민들의 입장에서 양이목사의 태도는 자신들의 어려운 사정을 대변해 주기에 동의적이지만, 지배 권력의 입장에서는 진상 요구에 거부적 태도를 보여준다.

〈양이목사본〉은 저항과 투쟁이라는 갈등을 다루면서, 인물의 태도는 동의보다 거부적 성향이 지배적이다. 한쪽의 승리는 다른 한쪽의 패배를 수반하기에 이 같은 대결 구도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때 극적인 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바로 양이 목사의 죽음이다. 양이 목사의 죽음으로 “제주 어려운 마장 백마 백필 진상”하는 폐단을 없애고, 국가 권력의 수탈로부터 제주 백성을 구제해 주었기 때문이다.

양이 목사가 금부도사와의 결투에서 패배하여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은 비극적이지만, 그의 죽음으로 드러나는 저항 의식이 국가 제도에 반영되었다. 결국 양이 목사의 죽음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고, 지배 집단의 동의를 얻게 되었다.

‘동의-거부’의 논리로 살펴보았던 다른 본풀이에서 동의적 태도는 인물

24) 이러한 양이 목사의 태세 전환을 두고 류진옥은 양씨 집안에서 “학정으로 인하여 원사를 맞은 조상을 위무하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집안의 조상신으로 좌정하는 내력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류진옥(2019), 같은 글, 142쪽. 이는 양씨 집안의 후손에 의해 양이목사의 죽음에 대한 처벌적 성격을 탈각시키고, 빈민 구제를 위해 희생하는 목사의 영웅성을 강조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사이에서 관계의 긍정이, 거부에서는 관계의 부정이라는 의미가 성립되었다. 그런데 〈양이목사본〉은 국가와 집단의 관계에서 시종일관 거부의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중국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임으로써 관계의 회복을 꾀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부당함에 맞서는 정담함의 원칙이 작용한다. 이타적 행위란, 자기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태도에서 비롯하는데, 이때 타인을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이 무조건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진상에 부응하지 않는 양이 목사의 거부적 태도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무리한 진상 요구는 고스란히 백성들의 피해로 이어지기에 양이 목사의 거부적 태도는 제주 백성에게 긍정의 영향을 미친다. 즉, 부당함에 맞서는 거부의 태도는 타인을 위한 이타적 사유의 다름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이 목사의 행위는 제주 백성에게 동의적인 태도로 가치의 전환이 이뤄진다.

그가 조상신으로 섬김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양이 목사가 진상 제도의 폐단을 막아준 공로는 한 가문의 업적을 넘어, 제주 집단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한 업적은 부당함에 거부하는 용기, 부패 권력에 수긍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결국 양이 목사의 거부적 태도는 국가와 지방, 수탈과 저항의 대립을 중재하는 긍정의 효과를 불러온다.

〈광청아기본〉과 〈양이목사본〉에서는 일월조상이 되는 아기씨와 양이 목사의 이타성을, 〈나주기민창본〉에서는 안씨 선주의 이타성이 주목된다. 동의-거부의 태도를 분석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결과만을 따져서 이타성을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타성이 성립되는 조건으로써 행위의 이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동의-거부의 관점에서 살펴본 신화 분석은, 일월 조상과 인간의 관계 맺기에 주목하여 인물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서사의 전개 과정과도 대응한다. 이상으로 분석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풀이	서사적 사건	인물 태도	관계의 양상
〈광청아기본〉	만남-이별-만남	동의-거부-동의	호의-이기-호혜
〈나주기민창본〉	기근상황-해결과정-해결	동의-동의-동의	연대-협력-신뢰
〈양이목사본〉	진상 요구-진상 거부-타협	거부-거부-동의	적대-적대-타협

3. 조상신본풀이가 구현하는 이타성의 의미

종교학자인 미르치아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성스러운 역사를 말하면서 “신화 그 자체는 ‘좋은 것’이거나 도덕성의 보증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²⁵⁾ 엘리아데의 말에 따르면 신화는 윤리적인 가치 판단에 절대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대신에 “인간 생활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렇다면 조상신본풀이에서 조상과 후손이 관계 맺는 방식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제시하는가?

우리는 신화를 통해 인간 사유의 근원과 본질을 발견할 수 있으며, 신화는 ‘무엇이’ ‘왜’ 처음 생겨났는가에 대한 시원(始原)적인 물음에 답을 제시해 준다. 2장에서는 어떻게 가문을 수호하는 일월조상이 되었는가를 인물의 태도인 ‘동의와 거부’의 논리로 살펴보았다. 본풀이마다 일월조상이 되는 사연은 다르지만, 자손에게 기억되어 추앙받는 신이 되는 배경에는 이타성의 원리가 녹아있다. 일월조상이 되는 것은 자신과 맺은 가문의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는 이타성의 가치를 전제하며, 자손을 위하는 조상신의 배려와 인정의 덕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광청아기씨와 송영감, 뱀신과 안씨 선조, 양이목사와 금부도사의 갈등 관계에서 이타성의 발현은 타인의 행위와 뜻에 공감하는 동이의 원리에 입각하여 나타난다. 이때 일월조상은 자신보다 후손의 안위(安危)를 생각

25) Mircea Eliade, 이은봉 역, 『신화와 현실』, 한길사, 2011, 204쪽.

하고, 인간은 조상의 마지막 당부를 기억해서 그의 뜻을 기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일월 조상은 인간의 잘못을 따져서 처벌하기 보다는 죽어서도 후손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본풀이가 담지하고 있는 이타성의 관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가) 삼메일 기일제사 일처이 호오옴고 가지가지 벌어지던 즈손덜엔 초상(祖上)의 간장을 풀리민 조은 베실도 신나수와 주고 엇는 제물(財物) 쩌른 멍(命) 쩌른 복(福)도 있어주고 송택에 전대전승을 시겨 옴던 송동지영감 광청아기 광청일월 본산국 신산국이 뉘옵네다. 난산구이 뉘옵네다.
〈광청아기본풀이〉²⁶⁾

(나) 느네 선주덜 사는 울성장안 돌아봐도 내 몸 김출 디가 엇어져, 나 갈들로 갈 테이니, 안씨선조 상단골 맺어 송씨선주 하단골 맺어 박씨선주 제민단골 맺어, 삼메일 기일제사 일년 흥번 철같이(새해나 절기가 바뀔 때)로 나에게 상바찌민 좋은 재산 일투와 주곡 천하거부 시겨주마.
〈나주기민창 조상본〉²⁷⁾

(다) “흥고향 들어가건, 영평 팔년 을축 삼월 열사를 즈시생은 고의왕 축시생은 양의왕 인시생천 부의왕 삼성 가운데, 토지관 탐라 양씨 자손만테깻지 데데전손을 해야 신정국을 내풀리고 이 내 역스상을 신평어 난산국을 신평민 우리 즈손덜에 만데유전 시겨주마.”
〈양이목사본〉²⁸⁾

위의 인용문은 일월조상신이 인간에게 전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이다.

(가)아기씨는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는 송영감에게 해꼬지하지 않고, 승선을

26) 현용준, 〈광청아기(송동지영감)본〉,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개정판), 각, 2007, 713쪽.
27) 현용준, 〈나주 기민창 조상〉, 『제주도 신화』, 서문당, 2016, 260쪽.
28) 현용준, 〈양이목사본〉,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개정판), 각, 2007, 693쪽.

막으며 자신을 바닷물에 빠지게 한 뱃사공을 처벌하지 않는다. 아기씨의 혼령이 오직 바라는 것은 “일 년 한번 철갈이 때” 자신을 위해 상을 차려 주는 것이 전부이다. 그저 송씨 가문에서 자신과의 인연을 잊지 않고 제사 지내 주면 그만인 것이다. 이처럼 조상신과 인간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호혜 관계는, 송씨 집안이 삼시간에 거부가 되는 것으로 가문을 수호하는 조상신의 뜻을 실현한다. 동시에 조상신과 인간은 서로에게 이로움을 주는 존재로 관계를 공고히 다진다.

(나)에서 나주기민창고를 지키는 뱀신은 안씨 선주 때문에 갈 곳을 잃어 난처한 상황을 맞는다. 신은 안씨 선주를 따라 제주까지 따라왔지만, 자신의 몸을 의탁할 곳을 찾지 못하여 곤란하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안씨 선주를 벌하기는커녕 도리어 안씨 선주의 배를 지켜준다. 대신 ‘기일 제사 때 한번, 상을 차려 주는 것’으로 자신을 기억해 주길 당부한다. 뱀신 역시 후손과 자신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이타성의 관념을 실현한다.

(다)에서 양이 목사는 제주 백성을 위해 억울하게 죽지만, 자신을 죽게 한 금부도사(지배 집단)를 향해서 앙갚음을 하지 않는다. 비통한 죽음을 해원(解冤)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후손들이 자신의 사연을 기억하고 자신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 제사 지내주는 것이다. 양이 목사가 죽기 전, 국가의 지나친 수탈과 무리한 진상 요구로 고통받는 제주 백성들의 고통을 금부도사에게 전함으로써 백성을 향한 이타심을 읽을 수 있다. 억울하게 처형되고 나서 고동지 영감에게 전하는 유언에는 분노와 미움 대신, 양씨 후손과의 인연을 강조한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결연한 태도에서는 지방관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가 남긴 유언을 통해서도 양씨 집안 후손들을 생각하는 자비로운 선조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끝내 권력의 희생이 되어 제도의 폐단을 막아주었다는 사실은 이타적인 행위의 본보기가 될 만하다.

일월조상신이 남긴 마지막 유언의 핵심은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

속의 이타성이다. 인간이 저지른 전일의 사정은 덮어두고 앞으로 자손들이 자신을 기억하기를 바라며, 후손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강조한다. 이처럼 조상신본풀이에는 조상신과 가문이 인연을 맺는 최후의 순간에 조상이 인간의 죄를 탓하지 않음으로 상호 존중과 배려, 협력과 소통의 가치를 구현한다.

또한 일월조상이 인간에게 행하는 이타성의 저변에는 갈등을 중재하고,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갈등을 풀어가는데 자신의 입장과 상황만 헤아리고 타인의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문제를 우호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타심의 발현에는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존중해 주는 배려의 태도가 크게 작용한다. 광청아기와 뱀신, 그리고 양이 목사의 원통한 사연에도, 조상이 인간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고 누구를 탓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일월조상의 이타적 행위와 이타성의 사유를 후손이 기억함으로, 조상신본풀이의 서사는 더욱 신성한 가치로 재구성된다. 신성의 가치는 신이한 행적(行跡)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섬김을 통해 획득되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인간이 조상신을 섬기는 의도는 분명하다. 인간은 제사를 통해서 집안의 우환(憂患)을 막고 자손의 번영을 빌기 위해 즉, 기복신앙(祈福信仰)의 전통 위에서 조상신을 위한 제사를 중시한다. 인간은 조상신의 수호(守護)가 필요한 존재이며, 조상신 역시 인간의 섬김을 필요로 한다. 조상신과 인간은 이승과 저승이라는 다른 차원의 공간에 있음에도, 서로를 기억하고 지켜주는 상호 협력의 관계를 유지한다.

조상신과 인간이 보여주는 동의의 태도에서 우리는 이타성의 진정한 의미를 탐색해 볼 수 있다. 공감, 신뢰, 배려, 존중, 협력의 가치는 이타성의 관념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으로서, 이타성의 시작은 서로가 뜻을 모아 동의하는 것으로부터 비롯한다. 나와 다른 인종, 집단, 타문화에 대한 차별의 인식이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반면, 동의적 태도는 다름과 차이에 대

한 존중을 실천하는 방편이 된다. 이로부터 호혜와 신뢰 그리고 관용으로 맺은 관계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이기심을 잠재우고, 소통과 협력이 원활한 공동체의 회복을 꾀한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조상신본풀이에서 〈광청아기본〉, 〈나주기민창조상본〉, 〈양이목사본〉을 중심으로 조상신과 인간의 관계를 살피고, 이타성의 구현 방식 및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의의 태도는 이타적 관계를 실현하는 가장 단순한 원리이다. 본풀이의 일월조상신은 동의의 태도를 통해서 후손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속한다. 조상신본풀이에서 그리고 있는 이타성의 의미는 호혜와 신뢰, 관용의 의미로까지 그 외연을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타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인물의 구체적인 관계를 통해 재현함으로써 본풀이가 그리는 이타적 세계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상신본풀이에서 인간에게 제향을 받는 일월조상은 특별한 계기로 인간과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는 일회적이지 않고 대대손손(代代孫孫) 이어진다. 조상과 후손은 대를 거듭할수록 매번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동시에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이는 본풀이의 전승을 통해 가문과 조상의 특별한 사연이 기억되기 때문이다.²⁹⁾ 일월조상과 인간은 보다 특별한 사연으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상과 후손이 어떠한 사연으로 관계 맺는지 관계의 양태를 살펴보는 것은, 조상

29) 인간이 신을 숭배하는 사연을 담은 이야기가 본풀이라고 할 때, 이타성의 가치가 반드시 조상신본풀이만의 특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본풀이의 개별 서사마다 이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해석의 다양성 만큼이나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가문을 수호하겠다는 조상의 약속과 조상을 기리는 섬김의 태도에서 특별히 이타심이 긴요하게 요구된다.

신본풀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이바지한다.³⁰⁾

신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하리만큼 분명하다. 조상신은 인간의 잘못을 처벌하는 대신 잘못을 뉘우치게 하거나, 자신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인간과 조상신의 관계를 이어간다. 인간이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해도 신은 인간을 너그럽게 포용한다. 조상신본풀이는 조상신과 인간의 관계 맺음을 넘어 나와 타인이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가르침을 전한다. 그리하여 나와 타자가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겪어야 할 갈등 해결의 방식에서 성찰의 기회를 마련한다.

30) 전주희는 이야기의 담화를 분석할 때 인물들의 관계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관계는 인물의 행위가 일어나는 주변부로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맥락을 파악하는 데 핵심적이며, “관계는 곧 인물들의 배경이자 그들의 살아가는 세계 그 자체가 된다”고 말한다. 전주희, 「인간 문화와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본 제주도 본풀이의 총체성」, 『한국무속학』 38, 2019, 155~156쪽 참조.

참고문헌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1~859쪽.
- _____, 『제주도 신화』, 서문당, 2016, 1~279쪽.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서순실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5, 1~367쪽.
- 〈디지털제주문화대전-출륙금지령〉,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grandculture.net>
- 김헌선,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의 신화적 성격과 역사적 의의」, 『한국무속학』 11, 한국무속학회, 2006, 201~235쪽.
- 김헌선, 현용준, 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보고서, 2006, 1~420쪽.
- 류진옥, 「제주도 조상신 ‘광청아기씨’ 신앙의 형성 배경 고찰」, 『한국무속학』 42, 한국무속학회, 2021, 113~146쪽.
- _____, 「조상신본풀이 전승 양상」, 『한국무속학』 38, 한국무속학회, 2019, 113~149쪽.
- _____,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전주희, 「제주도 본풀이의 세계관과 에토스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83~84쪽.
- 정진희, 「제주도 조상본풀이 〈양이목사본〉의 한 해석」, 『제주도연구』 32, 제주학회, 2009, 205~228쪽.
- 조명현, 「이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와 공감의 상대적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9), 한국콘텐츠학회, 2021, 652~665쪽.
- 조현설, 「제주 본풀이에 표현된 집단기억과 제주인의 정체성 연구」, 『고전문학연구』 58, 한국고전문학회, 2020, 265~294쪽.
- 현용준, 「제주도(濟州島) 무신(巫神)의 형성(形成)」, 『탐라문화』 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82, 1~25쪽.
- Mircea Eliade, 이은봉 역, 『신화와 현실』, 한길사, 2011, 1~258쪽.

ABSTRACT

A Study of the Discourse of Altruism
in Jeju Island shamanic myths '*Josang-sin-bon-pulli*'

Kang, Ji-youn

This study analyzes the way humans relate to their ancestors, focusing on *kwangcheng-aki-pon*, *naju-giminchang-josang-bon*, and *yangi-moksa-pon* among the '*Josang-sin-bon-pulli*'. In doing so, it aims to examine the meaning of altruism embodied in *Bonpullyil*.

The narrative of '*Josang-sin-bon-pulli*' focuses on a special 'relationship' with humans. It tells the story of how an ancestor becomes a deity who protects a family. The discourse of altruism is associated with the central event that dominates *Josang-sin-bon-pulli*, explaining the context of the ancestor's ongoing relationship with humans.

The attitudes of the characters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agreement' and 'rejection', and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human relationships with ancestors was identified. The attitudes of consent and rejection serve as the basis for judging a character's altruism. Without a consenting attitude, altruism cannot be realized, and acts that follow from altruism, such as caring and cooperation, cannot emerge.

In *kwangcheng-aki-pon* and *yangi-moksa-pon*, the altruism of *il-wol-jo-sang* is highlighted, and in *naju-giminchang-josang-bon*, the altruism of the *an-ssi-seon-ju*. The manifestation of altruism in their relationship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consent, which is sympathy for the actions and will of others.

In the process of ancestors becoming gods who are served by humans, and humans becoming special descendants of ancestors, we can see one aspect of the thought behind recognizing and serving the other. From this perspective, the background of becoming a god is discussed in terms of selflessness, and by identifying the essence of selfless thinking, a

practical alternative to the problems caused by selfishness today is proposed. “*Josang-sin-bon-pulli*” goes beyond our relationship with our ancestors to teach us about the way we relate to others. It provides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on how we communicate with others and how we resolve conflict with others.

Key Words

Josangsin-Bonpuri, Altruism, consent, refusal, reciprocity, ancestor, Il-wol-jo-sang

논문투고일: 2023.07.25.

심사완료일: 2023.08.08.

게재확정일: 2023.08.11.